

샬롬!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갈릴리에 이사 온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갑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에는 조금 쌀쌀했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더니 요즘은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가족들 모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침대가 있음에도 거실 돌바닥에 누어 자고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라니...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만난 복병, 이 무더위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달 저희들에게는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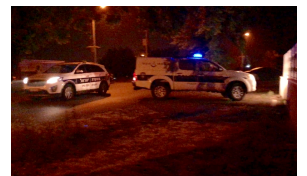
무더운 갈릴리 날씨

■ 유대인 마피아 이웃과의 동거

저희가 입주하고 난 이후 한 달이 지나서 저희 집 바로 뒤편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들은 오자마자 집 앞에 철문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더니 집 주변으로 담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구성원들도 처음에는 한 가족이 입주 했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오고가는 사람들을 보니 한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자매 둘과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마피자로 이스라엘에서는 꽤 유명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이들과 대치해 있는 상대편 조직이 다른 아랍 마피아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이 부분이 사람들의 우려 속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서 마을 사람들 특히 그들 주변의 이웃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경찰들이 이 마피아 이웃의 집을 급습해서 무기를 발견했고 해당 조직원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새벽에는 저희 집 앞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당시 거실에서 깨어 있었던 아내는 그 소리에 놀라 저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아내의 말로 지금 총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렸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들이 대거 왔고, 저도 집 앞의 상황이 궁금해서 밖에 나갔더니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는데 총격전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상대편의 위협에 대한 경고 사격을 하늘을 향해 7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주변 이웃들은 모든 집안의 문과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내고 있고 저희들 역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 목사님은 저희 집에 심방을 와서 잠시라도 다른 곳에 대피해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이 상대편 조직들의 공격 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오픈된 공간이라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집 주인에게 여러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집 주인은 끝내 그날의 사실을 부정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안전한 곳으로 속히 이사해야겠다 생각했고 이 부분을 놓고 집 주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집主人的 답은 저희가 나가더라도 다른 세입자가 그 전에 들어오거나 혹은 저희가 스스로 다른 세입자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계약할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텐데 저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일 가운데 가족들과 주변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저희 가정과 주변의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에 다시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과 사역에 합당한 처소가 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팀장님 부부의 심방



총성으로 출동한 경찰들



집 앞 감시 카메라



노인 주간 센터



키네렛 대학교 기숙사



키네렛 대학교

■ 노인 주간센터 봉사와 키네렛 대학교 사역

얼마 전부터 지역 내에 있는 주간 노인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봉사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고령의 노인들 가운데 침해 어르신들을 곁에서 돕고 또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17년 전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왔을 때 키브츠(집단농장)에서 6개월 동안 봉사했던 일들이기도 해서 익숙합니다. 그 때의 경험이 지금 다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는 키네렛 대학교(단과대)가 있습니다. 지난 폴란드 출장 가운데 배운 전략을 토대로 젊은 청년들을 만나 교제하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없지만 계속 만남의 장으로 나가려 합니다. 캠퍼스 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주의 복음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제목 」

Jewish Cluster Ministry Team

1. 가족과 이웃들에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2. 가족과 사역에 합당한 처소가 구해지며, 이사의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3. 새롭게 시작된 노인 센터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4. '키네렛' 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5. 아이들 홈스쿨과 관련하여 언어(영어,히브리어) 수업을 담당해줄 예비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운)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 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 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mailto:mindle-1@hanmail.net)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